

2026년 9월 4일
해외 주식

미국 주식

FOMC 이전까지 나스닥 신고가 기대; 이후 셀온 주의

케빈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9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급등했습니다 (그림 1). 연준을 책임지는 사람은 포워드 가이드를 주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언급하는데, 증시 참여자들은 그 말이 들어있는 연설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고용보고서 (9/4), 재무부 장기채 바이백 확대 (9/9) 및 물가상승률 (9/11) 발표를 거치면서 낮아질 것입니다. 다우존스/S&P 500이 8월 초에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6월 고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나스닥의 FOMC까지 강세를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나스닥에서는 반도체, 비AI에서는 은행 위주의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FOMC 이후에는 9월 30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8월 24일 이글스, '9월 FOMC 이후 셀온 주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동결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되면서 주가 반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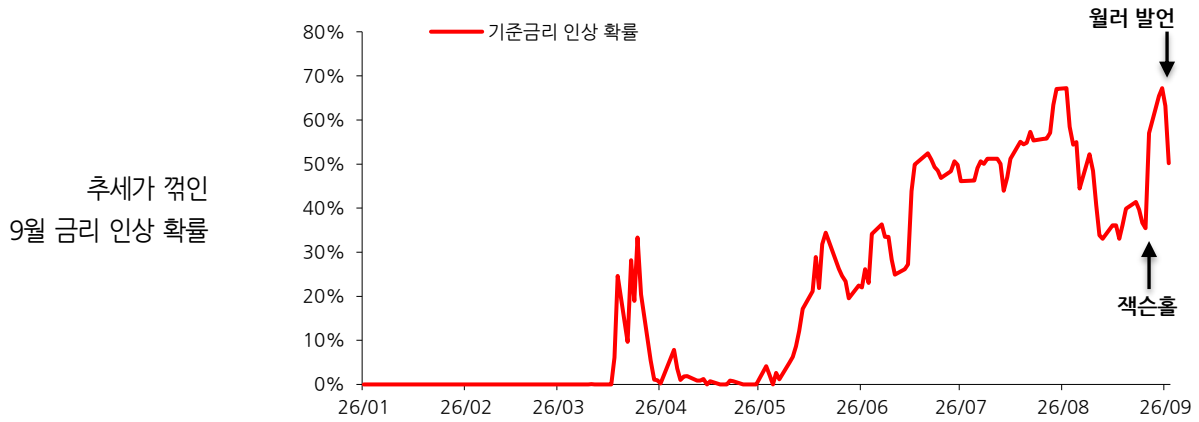
잭슨홀 연설 이전에 35%까지 하락했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67%까지 급등했다. 9월 3일에 월러 이사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유지되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50%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잭슨홀 이전보다는 높다.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동결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FOMC 이전에 3대 지수 중에서 유일하게 8월에 신고가에 도달하지 못한 나스닥의 상승을 판단한다.

- 1) 9월 4일 비농업고용보고서: 고용의 질이 낮아진 상태에서 (7월 27일 이글스 참조), 9월 2일에 발표된 ADP 신규 건수 컨센서스 하회 (3.8만 vs. 4.7만). 금요일 저녁에 발표될 고용 관련 데이터는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2) 9월 9일 재무부 바이백 확대: 베센트 재무장관은 TGA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 피력.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물가가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축소
- 3) 9월 11일 CPI: 주거비 비중이 35%로 가장 높는데, 과거 2개월 동안 전월 대비 상승률 0.1%로 제한. 8월 유가 (USD 83/bbl)도 7월 (USD 81/bbl) 대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및 핵심 물가상승률의 상방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

비벨 전략: 반도체와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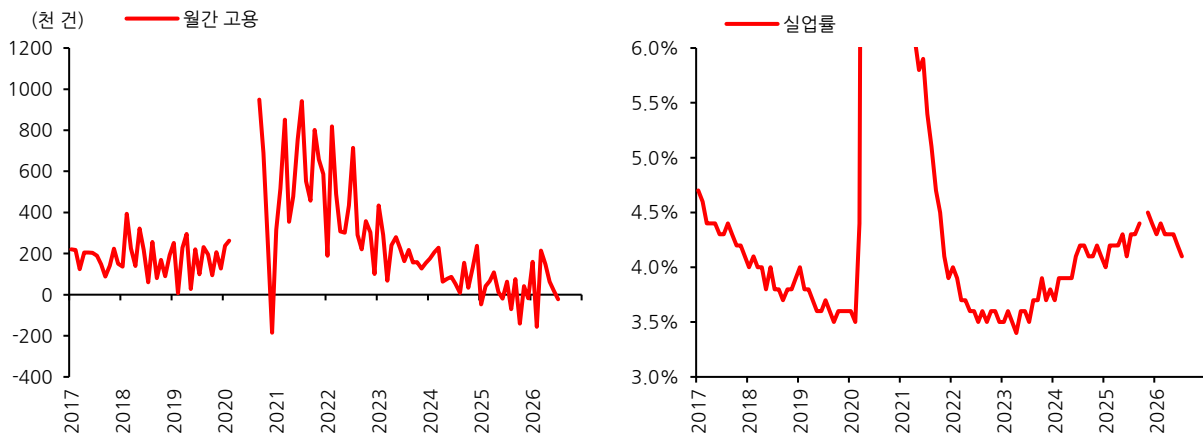
8월 26일 엔비디아와 9월 2일 브로드컴 실적을 통해 2027 ~ 28년까지 AI 반도체 수요가 강력하다는 점이 확인됐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TSMC, ASML의 최고경영자들도 7월 중순의 2분기 실적을 통해 2029년까지의 견조한 수요를 말했지만, 주가는 하락했다. 공급에 집중해야 하는 까닭이다. 9월 30일에 마이크론이 2027FY 가이드를 통해 통제된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주도주의 지위를 회복할 전망이다. 미국 은행은 NIM (P)과 대출 비용 (C)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대출 성장 (Q)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비AI 중에서 은행의 상대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2026년 9월 FOMC 기준금리 인상 확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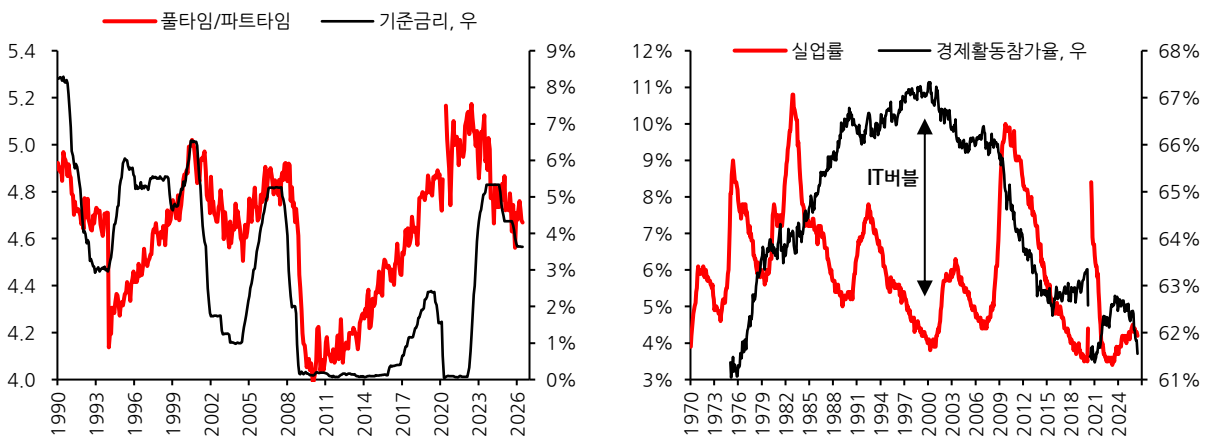
자료: FedWatch,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월별 고용 증가 (좌)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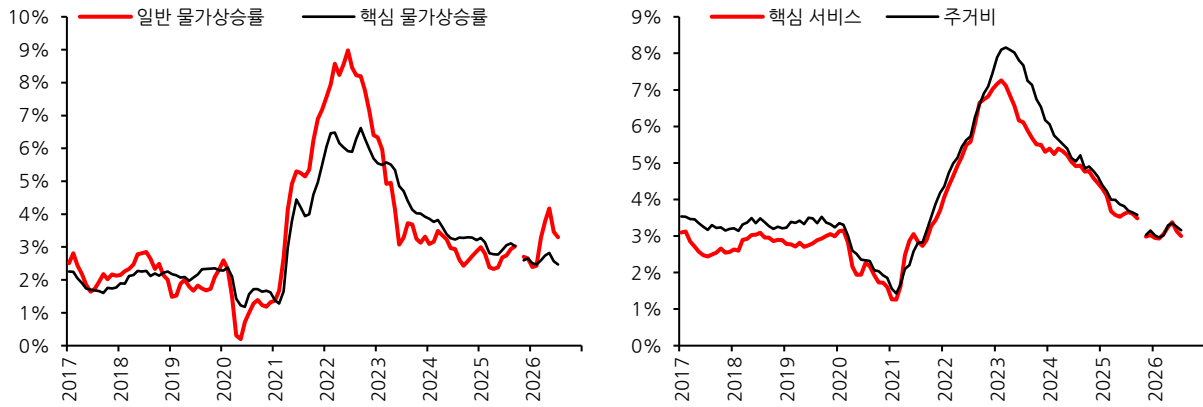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풀타임/파트타임 (좌) 및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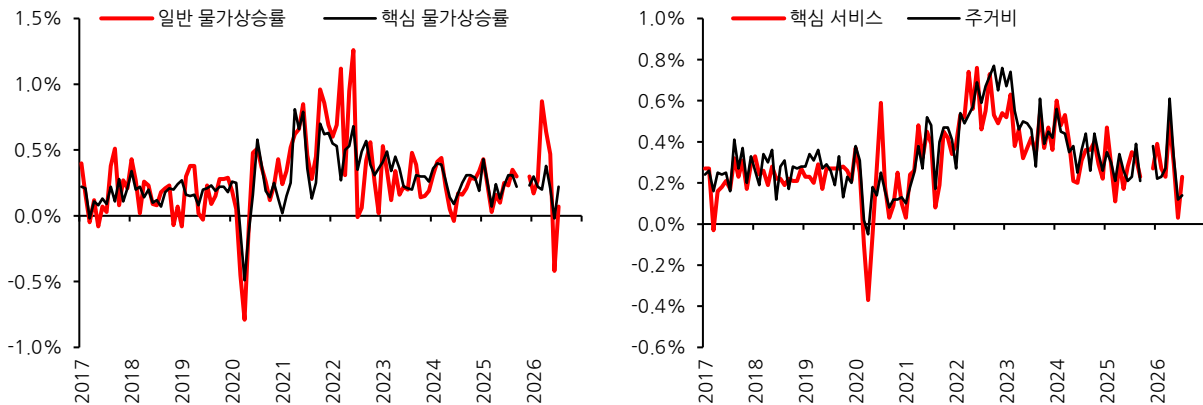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일반/핵심 물가상승률 (좌) 및 핵심 서비스/주거비 상승률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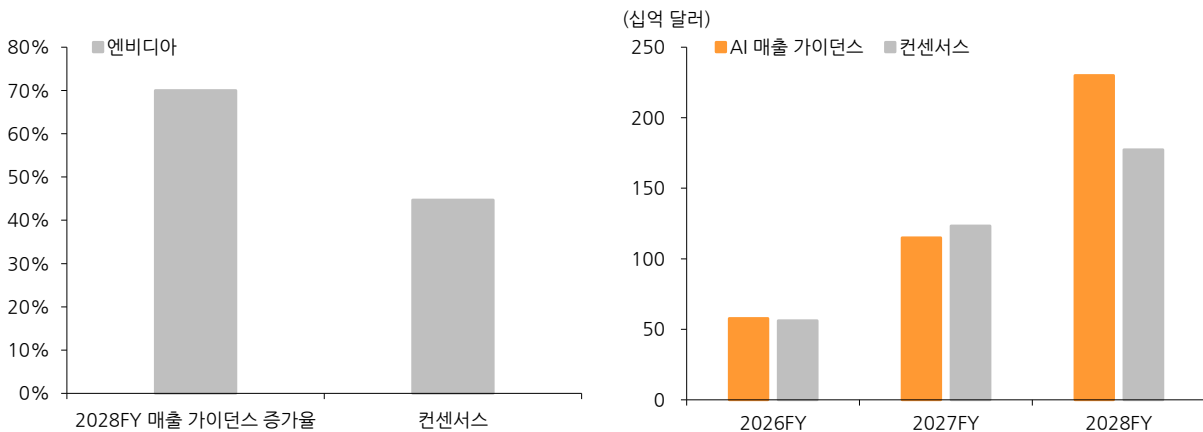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물가상승률 (좌) 및 핵심 서비스 및 주거비 상승률 (mom)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엔비디아 (좌) 및 브로드컴 AI 매출 vs. 컨센서스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9월 4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사회)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6.3%	3.7%	0.0%	100.0%